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한국 다문화 TV프로그램이 대학생
시청자의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 JTBC<비정상회담>을 중심으로 -

The Effect of Multicultural TV Programms on
University Students' Intercultural Sensitivity

- Focused on JTBC<Abnormal Summit> -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Lisa Wurzbacher

한국 다문화 TV프로그램이 대학생 시청자의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 JTBC<비정상회담>을 중심으로 -

지도 교수 모경환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 년 4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Lisa Wurzbacher

Lisa Wurzbacher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 년 6 월

위 원 장 _____ 이mina

부위원장 _____ 모경환

위 원 _____ Jérôme de Wit



 (인)

국 문 초 록

대한민국의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와 편견이 많다. 이렇게 빠르게 달라지는 사회 속에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중에서 특히 다문화 감수성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 특히 미디어가 언제나 어디에나 접속할 수 있으나 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자들은 미디어의 큰 영향력을 이용하여 편견을 없애고자 노력하며, 이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다문화 TV프로그램이 개인들의 차별적 태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문화의 집단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다문화 감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주목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 대표적인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한국 대학생들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추가설: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이 향상될 것인가?

- **하위가설1:**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대학생의 상호작용 참여가 높아질 것이다.
- **하위가설2:**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대학생의 문화 차이 존중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 **하위가설3:**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대학생의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의 긍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 **하위가설4:**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대학생의 상호작용 자신감이 높아질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 가설을 탐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인터넷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렇게 수집한 설문 자료 중 최종적으로 총 207명의 응답 자료를 연구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이 높아질 것인지 분석해보기 유효한 응답 자료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나아가 세부 연구 가설인 상호작용 참여, 문화 차이 존중 그리고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 차원의 이 3가지의 종속 변인에서 <비정상회담> 시청횟수의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되었다. 다만 상호작용 자신감이라는 종속 변인에서는 다문화 TV프로그램의 시청횟수는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 TV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과정으로 다문화 감수성 함양에 전체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역량, 다문화 TV프로그램, 비정상회담, 대학생 시청자, 다문화교육

학 번 : 2016-25255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연구 문제	2
제 3 절 논의의 구성	2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	4
1. 다문화주의의 역사적 배경	4
2. 한국 다문화 담론의 발전과 특성	5
2.1 한국 다문화 담론의 발전	5
2.2 한국 다문화 담론의 특성	8
2.3 한국 다문화 정책의 특성	10
제 2 절 미디어와 문화적 다양성	11
제 3 절 다문화 감수성과 미디어 영향	15
1. 다문화 감수성의 개념	15
2. 다문화 감수성과 미디어의 영향	17
제 3 장 연구 설계	19
제 1 절 연구 질문	19
제 2 절 연구 대상	20
1. 텍스트 소개	20
2. 조사 대상	23
제 3 절 연구 변인 및 조사 도구	24
1. 종속 변인	24
2. 독립 변인	26
3. 통제 변인	27
제 4 절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28
1. 연구 절차	28
2. 분석 방법	29
제 4 장 연구 분석 결과	31
제 1 절 비정상회담 시청과 다문화 감수성	31
제 2 절 다문화 감수성 하위요소와 비정상회담 프로그램 시청	33
1. 비정상회담 프로그램 시청과 상호작용 참여	33
2. 비정상회담 프로그램 시청과 문화 차이 존중	35
3. 비정상회담 프로그램 시청과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	37
4. 비정상회담 프로그램 시청과 상호작용 자신감	39

제 5 장 결론 및 논의	42
제 1 절 요약 및 결론	42
제 2 절 논의 및 제언	45
참고문헌	48
부록	52
Abstract	56

표 목차

[표 III - 1] 연구 참여자의 배경 정보	24
[표 III - 2] 다문화 감수성의 하위 요소	25
[표 III - 3] 다문화 감수성 하위 요소 별 문항 번호	26
[표 III - 4] 설문지 문항 간 신뢰도	26
[표 IV - 1] 다문화 감수성 점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32
[표 IV - 2] 상호작용 참여 점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34
[표 IV - 3] 문화 차이 존중 점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36
[표 IV - 4]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 점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38
[표 IV - 5] 상호작용 자신감 점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40
[표 V - 1] 다문화 감수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합	43

그림 목차

[그림 III - 1] 연구의 분석 틀	29
-----------------------------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와 편견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자들은 미디어의 큰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편견을 없애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실제로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 미디어 분야에서 다문화 프로그램 분석 연구는 지금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가 방송된 프로그램 내용 분석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TV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그중에 이현정, 안재웅, 이상우(2013)의 연구가 주목할 만한데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콘텐츠 시청량이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총 20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밖에 대부분의 기존 다문화 관련 미디어 연구들은 프로그램 내용의 분석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프로그램 시청자 중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를 통해 JTBC<비정상회담>에서 묘사된 외국인 출연진의 이미지가 시청자들의 다문화 감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밝혀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가 미디어 제작자 및 수용자에게 제시하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JTBC<비정상회담>이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다문화 TV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다문화적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양한 배경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학생들 중에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는 패턴과 그 원인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설문 조사를 통해 다문화 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이 그 프로그램의 시청자들의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하므로 비확률적 표집방법인 우연적 표집을 연구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시청자들이 <비정상회담> 본 후에 나타내는 의견과 다문화적인 태도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반응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다양한 반응을 자세히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주 가설: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이 향상될 것인가?

제3절 논의의 구성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다문화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참고문헌의 분석을 통해 다문화주의의 역사적 배경, 한국 다문화 담론의 발전과 특성 또는 한국 다문화 정책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으로 미디어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 감수성의 개념 그리고 다문화 감수성과 미디어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설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의 대상을 정의하고 <비정상회담> 텍스트 소개와 조사 대상을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변인과 조사 도구를 밝히고자 하며 본고의 연구 방법과 절차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대학생인 <비정상회담> 시청자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었던 프로그램의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 감수성 하위요소별 점수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며 결과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

1. 다문화주의의 역사적 배경

전반적인 세계화는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속도, 질 또는 양적인 면에서 더욱 더 진전되어 왔다. Lee Yongseung(2015: 85-86)에 의하면 수송, 통신 또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을 근거로 재화와 용역, 기술 또는 자본 그리고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졌다. 또한 비교적 엄격한 규정의 기저가 되는 인류 이동도 국가들의 노력을 비웃는 듯이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구변화는 수신 국가의 인구 상황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며 동시에 다양한 문화와의 접촉빈도를 늘리고 있다. 국가는 민족국가가 그의 통합을 엄격하게 지속하는 한, 견고한 통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류 문화와 새롭게 들어온 문화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Lee(2015: 86)에서는 과거에 인종적 다양성이나 문화적 다양성을 대면하는 국가가 보통 사회적 응집성의 미명에 숨어서 동화정책을 시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화’라는 것은 인종과 문화의 측면에 엄격한 계급 제도를 함축하며 배제와 진압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동화는 어떤 다양성이라도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게 만든다. 하지만 현 사회에서 동화정책은 사회적 통합정책의 역할을 하는 데에 한계에 직면하였다. 국가들이 과거에 동화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소수민족문화들이 괴멸되지 않았고 대신에 그들은 살아남아 존재를 드러내었다.

Lee(2015: 88-89)에 따르면 다문화주의는 소수 민족들을 위한

단체들, 활동과 기관들에 대한 지원에 치중하는 대중들의 인정을 제공하며 여러 소수 민족들의 문화적 또는 종교적 가치관에 민감하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개발, 모국어 교육 또는 소수 민족 정체성 형성과 주류 사회 학생들의 인지 능력 개선을 목표로 한 소수 민족 학교의 설립을 인정한다. 혹은 다문화주의가 문화적 민감성을 촉진한다.

그러나 최호림(2015: 39-40)에서는 이러한 다문화주의가 1970년대부터 독점적으로 서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캐나다와 호주와 같은, 대부분 이민자들로 구성된 국가들, 또는 민족국가 개념이 유지된 유럽에서 그때부터 다문화주의가 생겼다고 주장한다. 최호림(2015: 39)에 의하면 “이민자의 증가와 소수민족 및 원주민 권익운동으로 야기된 인종-종족 집단 간의 갈등을 관리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담론과 정책으로 시작되었다”. Lee가 주장하는 것처럼 199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서는 이민자들이 자신이나 나라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사회 내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해서 이러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때부터 다문화주의 또는 이민자에 관한 이슈들은 서구의 사회와 정치 내에서 더 긴급한 문제로 취급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인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2. 한국 다문화 담론의 발전과 특성

2.1 한국 다문화 담론의 발전

한국 사회는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단일민족 국가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 단일민족이란 단 하나의 민족이 구성하는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수민족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라는 뜻이며 국가 내에

타민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단일민족 국가의 경우에 국가는 단일의 민족문화나 언어나 가치관을 전제로 운영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한국은 남은 세상으로부터 단혀진 채로 타문화가 들어오지 못했으며 교린 정책^①에 따라 산발적인 무역과 외교 사절만 허락되었다. 그래서 조선과 이웃 국가들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는 했으나 가능한 한 폐쇄국으로 남아 있다가 다만 필요한 만큼만 다른 국가들에게 문을 열었다.

Choe(2003: 55-64)에 의하면 한국 고대사 초기부터 민족주의자들은 국가의 실현성이 있는 정체성을 만드는 데에 주력했다. 따라서 한국은 1954년의 분단까지 통일된 상태로 남아 왔다. 한국은 인종집단에 오랫동안 주요 변화를 전혀 겪지 않았으며 초기의 민족주의자들은 모든 한국인들의 공통의 조상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신념은 여러 세기에 걸쳐 전해져 내려왔으며 강화되었다. 다만 그것은 오히려 일본의 한국 합병으로 인해 처음으로 위기에 봉착하였다. 한국이 1910년 일본의 지배 하에 들어갔을 때 일본인들이 적절한 조치 때문에 한국 정체성이 위협에 빠졌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1939년에 한국에서 문화동화정책을 결정하는 동시에 한국 성씨를 일본 성씨로 바꾸라는 명령까지 내렸기 때문이다. 이때에 한국인들을 식민권력과 뚜렷이 구별할 필요성이 커지며 민족주의자들은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 공통된 조상과 단 하나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를 사용하였다. 또한 한국 민족은 단일의 민족문화, 언어와 가치관으로 통일되는 민족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Pai(2000)와 같은 연구자들에 따르면 한국이 ‘단일민족 국가’라는 것은 단지 신화일 뿐이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① 조선 시대에 태조가 여진(女眞)과 일본에 대하여 화친을 꾀한 외교 정책. 이를 통해 관무역(官貿易)이 행해지게 되었다. [네이버 국어사전]

수만 보더라도 한국이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으며 한국 다문화주의의 급속한 성장도 확인할 수 있다. 1992년만해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수는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65,673명밖에 안 되었다. 그에 비해 새천년에 들어섰을 때 이런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44,172명에 이르렀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한국에서 기록된 외국인의 수는 2013년까지 무려 6배로 늘어났으며 1,445,631명에 달하였다. 한국 총인구가 이 때에 50,948,277명인데, 이 중 외국인들은 총인구의 약 2.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법무부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7년 8월 31일 기준으로 외국인의 수는 2,062,973명에 달했으며 한국 총인구의 약 3.9%를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외국인들 가운데에 주류를 이루는 3가지의 주요 집단을 찾을 수 있다: 이주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결혼이주민과 그들의 자녀, 마지막으로 새터민^②이라는 북한 이탈 주민. 조선족도 또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

다양한 배경에서 온 사람들의 계속되는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도 단 하나의 언어와 역사 또는 민족적 동질성으로 통일된 국가로 간주된다. 이는 한국 사회의 일부로서 정체성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국의 전체적인 통신 매체와 미디어의 영향을 살펴볼 때도 명심해야 한다.

^② 기존의 탈북자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순우리말로 2005년부터 사용했다. 새터민은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고 긍정적·미래지향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선정하였다. 통일부는 공식적인 용어로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하되, 비공식적으로 ‘탈북자’를 대신하여 ‘새터민’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새터민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2.2 한국 다문화 담론의 특성

Kong/Yoon/Yu(2010: 254-255)에 따르면 1950년대 한국 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한국은 동맹국의 참전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외국인의 유입과 증가를 경험하였다. 다만 휴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에는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한국에 머물렀다. 1990년까지 대한민국의 정부는 주로 선진국에서 온 전문가들과 투자자들만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도록 허용하는 비교적 엄격한 이민 정책을 고수하였다. 그런데 1970년대에 시작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한국이 노동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특히 ‘3D’라는,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힘든 직종들에 이런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였다. 그전에 한국이 노동력 수출 국가였다면 이때부터 반전되기 시작했으며 국가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 노동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약 15년 동안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으나 이런 정책은 사실상 해외에서 값싼 노동자를 이주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한국으로 들어온 노동자들이 흔히 2년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 한국에서 머물 수 있는 체류허가만 받았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와 공사청부와 비자 만료 후에도 한국을 떠나지 않는 노동자의 다수가 이주 증명서 없이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거주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불법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국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Lim(2010: 64-66)에서는 한국에서 장기적이거나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과반이 여성이며 결혼 때문에 들어온다고 주장한다. 1990년까지 국제결혼의 대부분은 한국 여성 외국 남성, 보통

일본이나 미국 남성, 사이에 계약된 결혼이라고 한다. 이는 한국의 식민지 역사와 한국 전쟁 당시 미군 주둔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Freeman (2011: 1-6)에 의하면 1990년대부터 외국에서 온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 시골에서 살던 남자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을 못 하는 상황 때문이었다. 그 때에는 고도 경제성장과 관련된 도시화 그리고 당시에 우세한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시골 지역에는 심각한 신붓감 부족이 생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족이라는 한국 교포 여성들은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며 중국에 둔 가족을 더 잘 부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시골 지역에 중국 신부와 한국 신랑 간 결혼의 수가 1999년 말에 37,171쌍이었으며 2005년에는 70,163쌍에 달했다. 또한 오늘날까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이러한 결혼이주는 시골 지역의 현상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결혼의 중개는 대부분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되었다. 게다가 이런 국제 결혼의 경우에는 중국 신부의 부모도 한국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그들 중의 일부는 한국을 떠나지 않았고 불법체류자로 지냈다. 그러나 중국 신부의 태도 변화와 외국 신부의 부정 행위로 인해 한국인들의 외국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2000년대에 완전히 바뀌면서 중국 신부의 평판도 철저하게 나빠졌으며 한국 남성들은 그들과 더 이상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또한 Freeman (2011: 1-6)에서는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때문에 한국에 전반적인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혼 시장의 변화를 가져왔다. 시골 지역의 총각들이나 평균 결혼 연령 이상의 남성들은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신붓감을 찾아 나섰다. 왜냐하면 동남아시아 여성들은 비교적쌌으며 여전히 현모양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한국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 성장, 나아가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으로 인해 한국이 외국인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유학국가가 되었다. 이런 이유로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에 95,794명이 유학비자로 한국에서 거주 중이며 한국체류 외국인 총인구의 약 4.6%를 차지하였다.

2.3 한국 다문화 정책의 특성

한국 다문화주의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성장해오며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식 다문화 정책’을 만들어 냈다.

Nora Hui-Jung Kim(2009: 103)에서는 한국 다문화주의의 현 복잡한 상태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에게 한국 국적을 제공하지 못한 정부의 실책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Kymlicka(1995)은 다문화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이민자들에게 거주국가의 국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본다.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 국적을 받지 못한 이주 노동자들이 있으나 중국계 이주자 (ethnic Chinese settlers)의 경우 쉽게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다.

Youngseung Lee (2015: 92-97)은 한국 정부가 나라의 다문화, 다국적 사회로의 변천을 선언하며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민자들에 관한 여러 가지 통합 방안을 다문화 정책의 이름으로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다문화의 본질이 의심스럽다고 한다. 실은 한국 정부로부터 시행된 다문화 정책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정책들은 ‘다문화 정책’보다는 ‘동화 정책’으로 정의 될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한국 다문화 정책들은 문화적 소수가 지배적인 주류 문화로 흡수되어야

한다는 것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수의 문화가 함께 나란히 살고 있는 사회 즉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것보다 단 하나의 문화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한국으로 온 첫 이민자의 집단인 이주 노동자들은 정부로부터 임시 노동자로 간주되며 한국에서의 일이 끝나면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Hye-Soon Kim(2006)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로 온 여성들 때문에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때부터 가부장적인 방식과 동화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한국에서도 자국의 문화를 실행하는 것보다 한국 여성들의 전통적인 아내 역할을 하도록 요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 외국인 거주자의 수가 2,000,000명을 넘어섰으며 따라서 이러한 동화 정책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대신 다문화 가정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 2 절 미디어와 문화적 다양성

미디어와 문화적 다양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Eugenia Siapera(2010: 5-6)는 여러 관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저자는 미디어의 타당성을 이해하는 데에 현 시대의 특성을 설명하는 사회사적 이론에 의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현 시대의 사회적 특징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적용하는 데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Beck(1992)는 이러한 현대의 특징을 ‘성찰적 근대화’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바로 사회가 계속 진보하기 위해 지식과 정보의 사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Manuel Castells(1996)는 네트워크 사회와 관련하여 비슷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사회 속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현 사회에 미디어가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는 미디어가 정보의 선전자, 커뮤니케이션의 플랫폼 그리고 어느 정도 새로운 지식의 생산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디어가 사회의 성장과 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John Thompson(1995)는 미디어가 사회관계의 변화와 재정렬 과정에, 특히 공공성과 시정(visibility), 또는 정체성에 관한 과정에 개입된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미디어가 ‘매개 상호작용 (mediated interaction)’을 생산하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딱 한 수신인보다 여러 분명히 밝히지 않은 수신인을 지정한다고 한다. 시정 즉 사람들이나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방식이 미디어를 통한 것이며 미디어의 선택 하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미디어 속의 문화적 다양성도 중재된 것(‘mediated’)이다.

Siapera(2010)에 의하면 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방식과 그것과 소통하는 방식, 또는 우리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만드는 방식은 다 미디어를 통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디어를 통해 반영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다문화와 관련된 이미지는 사회 속 의견을 매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한다.

한편 Jenkins(2006)는 지난 수십 년 간 변화해 온 속도가 경이적이었다고 하며 전세계적인 연결망의 증가는 통신기반, 미디어 콘텐츠와 전자기기의 융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디어를 체험하는 방식과 우리가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을 철저하게 바꾸어 놓았다고 하였다. Mohamed Zayani(2011)도 이것을 강조하며 연결성의 강화와 세계화의 축진이 가져온 현 사회 내에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으로 생긴 문화적 규격화의 위협을 경고한다.

Tehrani(1999)에 의하면 개개인이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에 기술과

미디어의 변화와 의사소통의 세계화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서로 밀접하지만 각각 다른 함축을 가지고 있는 3가지의 미디어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의 매크로미디어로서 세계적 위성과 컴퓨터 네트워크와 초국경적 데이터 흐름으로 정의된다. 이는 주변보다는 권력 중추 특권을 부여하며 국내시장, 사회와 문화의 세계화를 지원한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의 메소미디어이며 이는 언론, 인쇄매체와 시청각 매체 또는 영화산업을 의미한다. 이들은 평소에 정보나 상업적 또는 압력집단의 관리를 받으며 국가 통합과 사회동원의 주체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마이크로미디어란 전화기, 복사기, 오디오 및 비디오 레코더, 테이프 PC와 웹을 말한다. 마이크로미디어의 특성은 일반인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본 논문의 주체는 메소미디어로 분류될 수 있다.

나아가 Appadurai(1990)는 미디어가 문화 산업을 균질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미디어는 우리가 서로 그리고 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을 구체화한다. 이때 미디어가 어떤 이미지를 반영하는 힘을 통해서 특정 관점과 관습을 정형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개인들은 미디어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감각을 키우며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소비하고, 미디어 프레임워크 내에 현실을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Zayani(2011)는 미디어를 양날의 검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미디어가 권한 부여의 힘으로 사용되는 성향이 있는 동시에 복종으로 남용되는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디어를 통해 다름을 파악하면서 차이점을 포용하고 문화적 인식을 증진시키는 반면에 차이에 무관심해져 양극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미디어와 다문화주의의 관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국내 연구는 차나영(2013)의 연구이다. 저자는 한국 사회에서 화제가 된 다문화

가정들이 한국 미디어 속에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한국 미디어가 다문화 담론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차나영은 KBS<러브 인 아시아>라는 다문화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텍스트 분석과 동시에 프로그램 제작진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생산과정에 개입되는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차나영(2013)의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KBS<러브 인 아시아> 프로그램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에게 한국적 지위를 부여하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보다 전통적인 여성성을 강요함으로써 타자화와 동화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작단계에서 외국인 출연자의 언어적 한계 때문에 출연자의 솔직한 감정을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제시된다. 더 나아가 심층 인터뷰는 시청률을 의식한 제작진이 편집과 배열이라는 제작과정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모습이 미화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현정, 안재웅과 이상우(2013)의 연구가 주목할 만한데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콘텐츠 시청량이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총 20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저자들은 “다문화 콘텐츠 시청량은 다문화 수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TV에 대한 ‘인지된 현실감’과 개인의 ‘다문화 경험’이 독립변인(다문화 콘텐츠 시청량)과 종속변인(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를 중재한다”는 가설을 세우며 이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 콘텐츠 시청량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고, 그 중에서도 적극성과 개방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인의 중재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 나아가 연구자들은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이 다문화 수용성 증진에 기여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별 콘텐츠 중에서는 당시 방영되었던 KBS 2 ‘미녀들의 수다’가,

3개의 장르 중(주간 교양, 단편 다큐, 영화)에서는 영화 장르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미디어 역할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미디어 속 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나아가 대학생들의 설문 조사와 면담을 통해서 대표적인 한국 다문화 TV프로그램으로 선정된 JTBC<비정상회담>이 대학생들의 다문화적 이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다문화 감수성과 미디어 영향

1. 다문화 감수성의 개념

먼저 Cross et al(1989)는 문화 역량(cultural competence)을 문화간의 교류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게 만드는 제도나 전문가들로 합쳐지는 일치하는 행동과 태도 또는 정책들의 세트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감수성은 문화 역량의 많은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

Chen과 Starosta(2005)는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다: 인지의 차원 (문화 인식; cultural awareness), 정서적인 차원 (다문화 감수성; intercultural sensitivity) 그리고 행동의 차원 (다문화적 수완; intercultural dexterity). 더 나아가 Eginli(2011)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차원의 발달은 우리가 자신과 타인의 문화를 알아보고, 문화 차이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게 함으로써 다른 문화와 공감할 수 있는 지구 시민이 되도록 돕는다.

Chen과 Starosta(2000)에 의하면 다문화 감수성은 개인이 문화적

차이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공감할 수 있는 동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 의지로 정의한다. 또한 Chen과 Starosta(1998)는 다문화 감수성을 다른 문화뿐만 아니라 타문화 간의 차이점까지 다 이해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열망으로 정의하였다. 비슷하게 김정덕과 모경환(2011)은 다문화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다른 문화 사람들을 존중하고 수용하려는 태도, 신념 그리고 행동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Fritz, Graf, Hentze, Möllenberg과 Chen(2005)에 따르면 이러한 다문화 감수성의 개념에는 문화간의 상호작용 전, 후와 상호작용 도중에 긍정적인 감정 표현을 수용하고 내보이는 능력까지 포함된다고 한다. 또한 그런 긍정적인 감정 반응은 결과적으로 문화간 차이의 인정과 존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Hammer, Bennett과 Wiseman(2003)은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능력과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의 다문화 역량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Bhawuk과 Brislin(1992)는 다른 문화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기 위하여 우리는 타문화에 관심을 보여줘야 하며 문화간 차이점에 관심을 갖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되고 또한 타문화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기 위해 기꺼이 자기의 행동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다문화 감수성이 더 높은 사람들은 자기 민족 중심주의가 비교적 약하며 Olson과 Kroeger(2001)에 따르면 해외 거주 경험 또는 외국어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문화 감수성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1997년의 연구에서 Chen과 Starosta는 다문화 감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정서적인 요소들에 기초해야 된다고 정의하였다. 나아가 2000년 연구에서 저자는 이러한 이론은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요소들로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자부심(self-esteem), 자기 점검(self-monitoring), 열린 마음(open-mindedness),

공감(empathy), 상호작용 관여(interaction involvement) 그리고 판단을 유예함(suspending judgement). 이를 바탕으로 Chen과 Starosta는 다문화 감수성을 다음과 같은 5가지 하위 차원, 즉, 상호작용 참여(interaction engagement), 상호작용 향유(interaction enjoyment),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interaction attentiveness), 상호작용에 대한 자신감(interaction confidence) 그리고 문화 차이 존중(respect for cultural differences)으로 구분하였다.

2. 다문화 감수성과 미디어의 영향

Fritz와 Poe(1979)는 영화 감상이 정신의학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을 더 잘 인식하게 함으로써 문화 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알게 하고, 그 차이를 더 잘 다루고 차이를 통해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 문화 역량 훈련(cultural competence training)의 기본적인 교의라고 한다. Fritz/Poe(1979)는 소설이나 영화, TV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생들의 인간성과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어떤 미디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때 그 미디어 속 이야기의 극단적인 장면들이 사회적 고정관념에 따라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도 인식하였다.

Chen과 Starosta(2005)에서 정의했듯이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차원이 있다: 인지의 차원(문화 인식; cultural awareness), 정서적인 차원(다문화 감수성; intercultural sensitivity) 그리고 행동의 차원(다문화 수완; intercultural dexterity). 그 중에 본 연구는 정서적 차원인 다문화 감수성을 대상으로 선택했다.

다문화 감수성과 미디어의 영향을 더 자세히 살펴본 연구로는 Hui-Ying et al(2013)과 Meydanlioglu et al(2015)이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개인의 다문화 감수성은 소셜 미디어와 다른 매스컴 도구의 영향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Simsek et al(2017)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진 의사소통의 빈도는 다문화 감수성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매스컴 도구를 소비하는 것은 문화 차이 존중과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 차원의 다문화 감수성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ndon(1986)은 활동 사진(moving pictures)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Condon에 따르면 영화와 같은 움직이는 사진의 경우 이야기의 힘, 감각의 영향과 음악의 감정적인 리듬의 조합으로 이러한 영향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계속해서 교육자들은 과거에도 미디어의 현실주의를 인식하면서 미디어의 묘사력, 정서적인 힘과 탐구적인 기회를 이용해 왔다고 한다. 특히 Summerfield(1993)는 미디어의 현실주의를 개념학습을 위해 사용하였다. 저자는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의 말투, 몸짓, 표정, 시선과 침묵이 전부 문화와 연결된다고 하며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자신의 다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Wilkinson(2007)은 미디어가 동시에 여러 감각에 관여하는 힘이 강력하다는 점으로 인해 동시에 광범위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의 검토를 통해서 미디어가 개인의 다문화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이 한국 대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 질문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이 한국 대학생 시청자들의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는 다문화 TV프로그램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다문화 TV프로그램인 <비정상회담>이 대학생 시청자들의 다문화 감수성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 가설: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이 향상될 것인가?

- **하위 가설1:**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대학생의 상호작용 참여가 높아질 것이다.
- **하위 가설2:**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대학생의 문화 차이 존중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 **하위 가설3:**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대학생의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의 긍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 **하위 가설4:**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대학생의 상호작용 자신감이 높아질 것이다.

제 2 절 연구 대상

1. 텍스트 소개

<비정상회담>은 2014년 7월 7일에 처음으로 방송된 이후 2017년 12월 4일 마지막 방송까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높은 시청률을 유지했던, 가장 인기있는 다문화 TV프로그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토크쇼 형식을 띄고 있으며, 코미디언 유세윤, 방송인 겸 코미디언 전현무와 가수 겸 방송인 성시경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다. 또한 각 회차마다 각계에서 활동하는 한국 유명인들 0~2명이 ‘한국 비정상 대표’로 나오게 되며 자기 출신국의 대표로 출연하는 12명^③이 한국 유명인이 소개하는 안건에 대해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회의 안건이 소개되기 전에 프로그램 하위 코너로 ‘글로벌 문화 대전’을 실시한다. 이 코너의 목적은 각국 대표들의 자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알아보면서 타국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는 것이다. 28회부터는 ‘글로벌 문화 대전’ 대신에 3~6개의 나라의 소식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녹화일과 방송일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방송 당일에는 이런 소식이 더 이상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코너의 이름이 ‘한 발 늦은 이슈 늦었슈’였다. 그리고 53회부터 64회까지는 각 나라의 대표가 자기 나라의 역사적인 이슈에 대한 관점을 논의하는 ‘다시 쓰는 세계사’라는 코너를 선보였다. 또한 66회부터는 다시 ‘뭘? 나라 이웃나라!’라는 코너로 바뀌었다. 이 코너에서는 매회마다 다른 사람이 일일 비정상 대표로 출연하게 되며 자국에서 문화적이거나 다른 면으로 문제가 되는 안건을 소개해서 대표들이 서로 이 이슈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코너로 인하여 더 다양한 나라의

^③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11명이 대표로 출연하였다.

대표가 출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더 다양한 문화가 소개되었다. 69회 이후에는 같은 코너의 이름이 ‘그곳이 알고 싶다’로 바뀌며 일일 비정상 대표는 따로 안건을 내놓지 않으면서 자국의 문화를 알아보게 되었다.

마지막 방송인 2017년 12월 4일 날까지 고정 패널로 대표되는 나라는 캐나다, 독일, 미국,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중국, 파키스탄과 멕시코 그리고 한국이었으며 그들이 G7 (Group of Seven)과 비슷하게 ‘G11’로 불린다.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프로그램 소개’에 따르면 <비정상회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세계 정상 회담이 있다면, 여기, 국제 청년들의 평화와 행복한 미래를 위해 각국 세계 청년들이 뭉쳤다! 기성세대의 멘탈을 흔드는 비정상적이고 재기발랄한 세계의 젊은 시선! 과연 그들은 한국 청춘들이 봉착한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매주 다양한 국가의 청년들이 핫(Hot)한 안건을 놓고 펼치는 토론의 현장! 행복을 갈구하는 이 시대 청춘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색깔 있는 미래의 답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53회까지 다음과 같은 개회 선언을 하였다.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각국 정상들이 국제 연합, 유엔(UN)에 모여 정상회담을 펼칠 동안 자국에서 정식 파견한 적은 없지만, 지들(G들) 입으로 대표라 우기는 지들이(G들이) 모여 세계 청년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비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사무총장과 의장들의 역할을 맡고 있는 프로그램의 3명의 진행자는 쇼와 토론을 활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또는 나라 대표들을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암시적인 의견을 내거나 너무 격한 토론을 진정시키는 외에는 개입을 삼가며 뒷자리에 선다.

또한 프로그램의 토론적 성격 때문에 간혹 여러 나라 대표들의 의견이나 개념들이 서로 충돌하는 일이 있으며 자국의 가치관이 의심되거나 토론의 화제에 오를 수도 있다. 이처럼 본 프로그램은 오락적 성격 외에 교육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프로그램의 외국인 출연자들은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비정상회담>의 인기로 인해 2015년 2월 7일부터 2016년 4월 29일까지 원래 <비정상회담>에서 출연했던 대표들의 나라를 찾아가며 세계의 문화들을 체험하는 예능 프로그램인 글로벌 친구 집 습격 프로젝트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가 같은 방송사인 JTBC에서 제작, 방송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비정상회담>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책임프로듀서(CP) 조승욱, 연출 김노은, 조치호, 안성한, 허서문과 유수연을 비롯해서 작가 정다은, 남지연, 홍윤경, 신혜림, 김나영, 박서아, 김미지, 전선우, 강솔비, 그리고 진행 김혜인과 하진경에 이르기까지 제작진 전원이 한국인이라는 점이다.

프로그램의 첫 시즌은 2017년 12월 4일의 마지막 방송으로 종료되었으며 현재 시즌2는 논의 중이라고 한다.

2. 조사 대상

본 조사의 대상은 한국 대학생들이며 선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다문화 감수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동기와 초·중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Korhonen(2010)에 따르면 다문화 감수성과 같은 다문화와 관련된 정서적 영역의 가치관과 태도는 평생 교육에 큰 역할을 하며 개인의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총 207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측정된 응답자 또한 총 207명이다. 이 중 여성은 143명(69.1%), 남성은 64명(30.9%)이다. 분석 대상의 학년별 구성은 대학교 1학년 30명(14.5%), 2학년 37명(17.9%), 3학년 47명(58%) 그리고 대학원 35명(16.9%)이다.

다음의 [표 III - 1]은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I - 1] 연구 참여자의 배경 정보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여자	143	69.1
	남자	64	30.9
	합계	207	100.0
학년	1학년	30	14.5
	2학년	37	17.9
	3학년	47	22.7
	4학년	58	28.0
	대학원	35	16.9
	합계	207	100.0

제3절 연구 변인 및 조사 도구

1. 종속 변인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은 바로 다문화 감수성이다. 다문화 감수성이란 다문화 역량 중 하나이며 사람들이 오늘날의 다문화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정서적 영역이다. Chen과 Starosta(2000)는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ISS)을 고안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리커르트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로 할 수 있다. Chen과 Starosta(2000)는 다문화 감수성이란 개념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항목, 상호작용에의 참여, 문화 간 차이존중, 상호작용에의 유능감, 상호작용 향유와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채경희(2018)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기존에 있던 상호작용 향유와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두 항목을 상호작용에 대한 감정과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로 종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다문화 감수성은 다음과 같은 총 4가지의 항목, 즉 상호작용 참여, 문화 차이 존중, 상호작용 자신감과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로 구분한다. 이러한 다문화 감수성의 하위 요소들의 정리는 채경희(2018)가 제시하는 것처럼 다음 [표 III - 2]와 같다.

[표 III - 2] 다문화 감수성의 하위 요소

하위 요소	내용
상호작용 참여	사람들과 다른 문화에 대해 교류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
문화 차이 존중	고유의 문화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개방성을 보이는지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속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감정과 이러한 상황에서 타인을 대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
상호작용 자신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상호작용 능력에 대한 자기 진단과 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Chen과 Starosta(2000)의 연구에 제시된 질문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해 상호작용 참여, 문화 차이 존중, 상호작용 자신감 및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의 차원을

답은 총 24개의 질문으로 설문지를 구성해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문화 감수성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 [표III - 3]과 같다.

[표 III - 3] 다문화 감수성 하위 요소 별 문항 번호

다문화 감수성 하위 요소	문항 수	설문지 문항
상호작용 참여	7문항	Part II 1, 2, 3, 4, 5, 6, 7
문화 차이 존중	6문항	Part II 8, 9, 10, 11, 12, 24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	6문항	Part II 18, 19, 20, 21, 22, 23
상호작용 자신감	5문항	Part II 13, 14, 15, 16, 17

본 연구의 다문화 감수성 척도 신뢰도는 Cronbach α .899로서 Chen과 Starosta(2000)가 밝힌 신뢰도 Cronbach α .87과 비슷하게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한다. 설문지 문항 간 신뢰도는 다음 [표 III - 4]와 같다.

[표 III - 4] 설문지 문항 간 신뢰도

변인	구분	세부항목	Cronbach α 계수	
종속 변인	다문화 감수성	상호작용 참여	.833	.899
		문화 차이 존중	.726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	.604	
		상호작용 자신감	.843	

2. 독립 변인

본 연구는 다문화 TV프로그램이 대학생 시청자들의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본 연구의 주

가설은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TV프로그램인 <비정상회담>의 시청횟수가 본 연구의 독립 변인이 되며, 구체적으로는 이 연구를 통해서 <비정상회담>의 시청횟수, 따라서 <비정상회담>의 콘텐츠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 조사를 설정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해 <비정상회담>의 시청횟수가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보았다.

3. 통제 변인

본 연구는 기존의 다문화 감수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통제 변인을 설정하였다. 성별, 학년, 해외 거주 경험과 외국인과의 만남 경험 또는 주요 응답자의 다문화 인식과 같은 개인의 특성은 개인의 다문화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성별은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박수미와 정기선(2004)의 연구를 통해서 성별에 있어 여성은 남성보다 더 긍정적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해외 거주 경험도 개인의 다문화 감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예랑과 우수명(2011)과 같은 연구에서는 해외 체류 등으로 타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경험이 더 많을수록 다문화 감수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인해서 본 연구의 통제 변인에 개인의 외국인 접촉이라는 요인을 추가하였다.

셋째, <비정상회담>의 시청횟수를 개인의 TV소비 습관과 비교하기 위해 응답자의 평균 TV시청시간은 본 연구의 통제 변인으로 넣었다.

이러한 요인의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해외 거주 경험과 외국인과의 만남 경험 또는 주요 응답자의 다문화 인식을 개인의 다문화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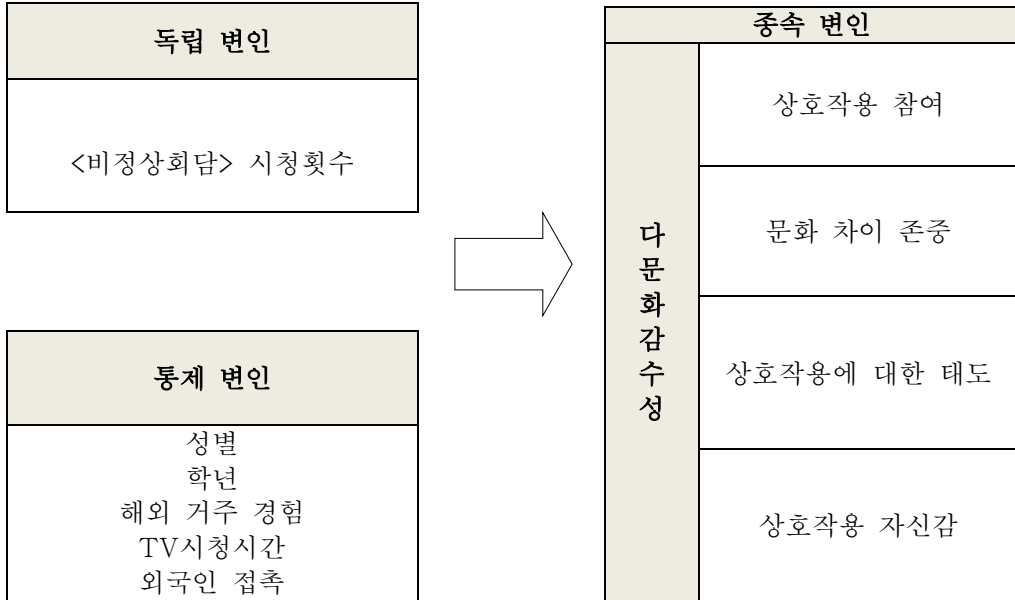
제4절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TV프로그램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이 높아질 것인지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를 비확률적 표집방법인 임의 표집으로 모집하였다. 임의 표집을 한 이유는 대학원생인 연구자 본인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집단이 대학생이기 때문이다. 설문 조사는 참여 의사를 갖고 있는 한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2개의 문항으로, 약 10분 안에 작성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 총 207명이 온라인으로 학과와 상관 없이 응답하였다.

2. 분석 방법

[그림 III -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의 주 연구 질문은 〈비정상회담〉의 시청횟수라는 독립 변인이 다문화 감수성이라는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림 III -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은 다문화 감수성으로 상호작용 참여, 문화 차이 존중,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 그리고 상호작용 자신감의 네 가지 하위요소로 구분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통제 변인을 설정하며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독립 변인인 〈비정상회담〉의 시청횟수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문화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성별, 학년, 해외 거주 경험, 외국인 접촉)을 통제 변인으로,

그리고 <비정상회담>의 시청횟수를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 식이 설정되었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Y_i = a + b_1X_1 + b_2X_2 + b_3X_3 + b_4X_4 + b_5X_5 + b_6X_6 + e_i$$

Y_i : 다문화 감수성

(Y_1 = 상호작용 참여, Y_2 = 문화 차이 존중, Y_3 =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

Y_4 = 상호작용 자신감)

a : 상수

X_1 : 시청횟수(본적 없음=0, 1-5=1, 6-10=2, 11-15=3, 15이상=4)

X_2 : 성별(남=0, 여=1)

X_3 : 학년(1학년=1, 2학년=2, 3학년=3, 4학년=4, 대학원생=5)

X_4 : 해외 거주 경험(없음=0, 있음=1)

X_5 : TV시청시간(1주) (1=1시간 이하, 2=1-3시간, 3=4-6시간, 7시간이상)

X_6 : 외국인 접촉(한달) (1=0, 2=1-5번, 3=5번이상)

e_i : 오차항

제4장 연구 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이 대학생 시청자의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 연구 가설은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이다. 이에 따른 세부 연구 가설로 대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의 하위 요소인 상호작용 참여, 문화 차이 존중,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 그리고 상호작용 자신감이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검토해 보았다. 먼저 분석을 위해 종속 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를 살펴보았으며 대학생 간의 다문화 감수성 점수의 차이가 어떠한 독립 변인과 통제 변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제1절 비정상회담 시청과 다문화 감수성

본 연구의 주 연구 가설은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에 대해 회귀모형으로 <비정상회담> 시청횟수가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V -1]과 같다.

[표 IV - 1] 다문화 감수성 점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B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3.324	.113		29.525	.000***	
시청횟수	.077	.024	.210	3.252	.001**	.077
성별	.051	.067	.048	.763	.447	.051
학년	.001	.024	.002	.026	.979	.001
해외거주경험	.036	.021	.117	1.742	.083	.036
TV시청시간(1주)	-.041	.032	-.083	-1.281	.202	-.041
외국인접촉(한달)	.233	.043	.360	5.467	.000***	.233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479	.229	.206	.44082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11.611	6	1.935	9.958	.000***
잔차	39.059	201	.194		
전체	50.670	207			

*p<.05, **p<.01 ***p<.001

본 회귀 모형에 대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통계량인 VIF가 모두 .001 ~ 0.3 사이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 - 1]에 따르면 회귀 모형에 포함된 독립 변인들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다문화 감수성 정도를 22.9%로 설명한다. 본 모형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9.958$, $p=.000$).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립 변인인 <비정상회담>의 시청횟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다문화 감수성 점수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B=.077, p=.001$). 회귀계수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비정상회담> 시청횟수가 더 높은 경우 다문화 감수성 점수가 .077점 높았다.

통제 변인 중 외국인 접촉도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B=.233, p=.000$). 하지만 통제 변인 중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성별($B=.051, p=.447$), 학년($B=.001, p=.979$), 해외 거주 경험($B=.036, p=.083$) 그리고 TV시청 시간($B=-.041, p=.202$)은 다문화 감수성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그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과 더 자주 접촉하는 학생들은 ‘다문화 감수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제2절 다문화 감수성 하위요소와 비정상회담 프로그램 시청

1. 비정상회담 프로그램 시청과 상호작용 참여

첫 번째 하위 연구 가설인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대학생의 상호작용 참여가 높아질 것이다’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 - 2]과 같다.

[표 IV - 2] 상호작용 참여 점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B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3.219	.142		22.691	.000***	
시청횟수	.107	.030	.229	3.572	.000***	.107
성별	.098	.085	.072	1.152	.251	.098
학년	-.028	.031	-.058	-.916	.361	-.028
해외거주경험	.056	.026	.146	2.172	.031*	.056
TV시청시간(1주)	-.042	.040	-.066	-1.034	.303	-.042
외국인접촉(한달)	.278	.054	.338	5.160	.000***	.278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486	.236	.214	.55560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19.218	6	3.203	10.376	.000***
잔차	62.046	201	.309		
전체	81.264	207			

*p<.05, **p<.01 ***p<.001

본 회귀 모형에 대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통계량인 VIF가 모두 -.05 ~ 0.3 사이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 - 2]에 따르면 회귀 모형에 포함된 독립 변인들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상호작용 참여 차원의 다문화 감수성 점수 차이 정도를 23.6%로 설명한다. 이 모형의 설명량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0.376, p=.000$).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립 변인인 <비정상회담>의 시청횟수는 상호작용 참여 차원의 다문화 감수성 점수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B=.017, p=.000$). 회귀계수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비정상회담> 시청횟수가 더 높은 경우 상호작용 참여 차원의 다문화 감수성 점수가 .107점 높았다.

나아가 통제 변인 중 해외 거주 경험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B=.056, p=.031$) 외국인 접촉도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B=.278, p=.000$). 하지만 통제 변인 중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성별($B=.098, p=.251$), 학년($B=-.028, p=.361$) 그리고 TV시청 시간($B=-.042, p=.303$)은 상호작용 참여 차원의 다문화 감수성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인으로 밝혔다.

즉, <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그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 안 하는 학생들에 비해 상호작용 참여 차원의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 그리고 외국인과 더 자주 접촉하는 학생들은 상호작용 참여 차원의 다문화 감수성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비정상회담 프로그램 시청과 문화 차이 존중

두 번째 하위 연구 가설인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대학생의 문화 차이 존중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 - 3]과 같다.

[표 IV - 3] 문화 차이 존중 점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B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3.979	.128		31.005	.000***	
시청횟수	.071	.027	.184	2.635	.009**	.071
성별	.095	.077	.085	1.242	.216	.095
학년	-.010	.028	-.024	-.352	.725	-.010
해외거주경험	.004	.024	.011	.149	.881	.004
TV시청시간 (1주)	-.053	.037	-.102	-1.456	.147	-.053
외국인접촉 (한달)	.144	.049	.211	2.957	.003**	.144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307	.094	.067	.50255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5.266	6	.878	3.475	.003**
잔차	50.764	201	.253		
전체	56.030	207			

*p<.05, **p<.01 ***p<.001

본 회귀 모형에 대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통계량인 VIF가 모두 -.06 ~ 0.15 사이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 - 3]에 따르면 회귀 모형에 포함된 독립 변인들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문화 차이 존중 차원의 다문화 감수성 점수 차이

정도를 9.4% 설명한다. 이 모형의 설명량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475$, $p=.003$).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립 변인인 <비정상회담>의 시청횟수는 문화 차이 존중 차원의 다문화 감수성 점수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B=.071$, $p=.009$). 회귀계수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비정상회담> 시청횟수가 더 높은 경우 문화 차이 존중 차원의 다문화 감수성 점수가 .071점 높았다.

통제 변인 중 외국인 접촉도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B=.144$, $p=.003$). 하지만 통제 변인 중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성별($B=.095$, $p=.216$), 학년($B=-.010$, $p=.725$), 해외 거주 경험($B=.004$, $p=.881$) 그리고 TV시청 시간($B=-.053$, $p=.147$)은 문화 차이 존중 차원의 다문화 감수성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그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 안 하는 학생들에 비해 문화 차이 존중의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과 더 자주 접촉할수록 학생들의 문화 차이 존중의 다문화 감수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비정상회담 프로그램 시청과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

세 번째 하위 연구 가설인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대학생의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의 긍정성이 높아질 것이다’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 - 4]과 같다.

[표 IV - 4]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 점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B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3.256	.129		25.218	.000***	
시청횟수	.063	.027	.158	2.291	.023*	.063
성별	-.002	.077	-.001	-.020	.984	-.002
학년	.037	.028	.091	1.323	.187	.037
해외거주경험	.009	.024	.026	.361	.719	.009
TV시청시간 (1주)	-.012	.037	-.023	-.330	.742	-.012
외국인접촉 (한달)	.177	.049	.256	3.627	.000***	.177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335	.112	.086	.50562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6.490	6	1.082	4.231	.000***
잔차	51.385	201	.256		
전체	57.875	207			

*p<.05, **p<.01 ***p<.001

본 회귀 모형에 대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통계량인 VIF가 모두 -.02 ~ 0.18 사이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 - 4]에 따르면 회귀 모형에 포함된 독립 변인들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 차원의 다문화 감수성 점수 차이 정도를 11.2%로 설명한다. 이 모형의 설명량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231, p=.000$).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립 변인인 <비정상회담>의 시청횟수는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 차원의 다문화 감수성 점수에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B=.063, p=.023$). 회귀계수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비정상회담> 시청횟수가 더 높은 경우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 차원의 다문화 감수성 점수가 .063점 높았다.

통제 변인 중 외국인 접촉도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B=.177, p=.000$). 하지만 통제 변인 중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성별($B=-.002, p=.984$), 학년($B=.037, p=.187$), 해외 거주 경험($B=.009, p=.719$) 그리고 TV시청 시간($B=-.012, p=.742$)은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 차원의 다문화 감수성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인으로 밝혔다.

즉 <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 차원의 다문화 감수성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들과 더 자주 만나는 학생들은, 외국인을 자주 접촉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 차원의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비정상회담 프로그램 시청과 상호작용 자신감

네 번째 하위 연구 가설인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대학생의 상호작용 자신감이 높아질 것이다’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 - 5]과 같다.

[표 IV - 5] 상호작용 자신감 점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B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2.764	.184		14.997	.000***	
시청횟수	.061	.039	.102	1.555	.122	.061
성별	-.003	.110	-.002	-.027	.979	-.003
학년	.010	.040	.016	.245	.807	.010
해외거주경험	.079	.034	.161	2.336	.020*	.079
TV시청시간 (1주)	-.060	.053	-.076	-1.148	.252	-.060
외국인접촉 (한달)	.346	.070	.333	4.946	.000***	.346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440	.193	.169	.72184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25.095	6	4.182	8.027	.000***
잔차	104.732	201	.521		
전체	129.827	207			

*p<.05, **p<.01 ***p<.001

본 회귀 모형에 대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통계량인 VIF가 모두 -.06 ~ 0.4 사이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 - 5]에 따르면 회귀 모형에 포함된 독립 변인들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상호작용 자신감 차원의 다문화 감수성 점수 차이 정도를 19.3% 설명한다. 이 모형의 설명량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8.027$, $p=.000$).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립 변인인 <비정상회담>의 시청횟수는 상호작용 자신감 차원의 다문화 감수성 점수에 $p<.05$ 수준 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B=.061$, $p=.122$).

그러나 통제 변인 중 해외 거주 경험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B=.079$, $p=.020$) 외국인 접촉도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B=.346$, $p=.003$). 반면에 통제 변인 중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성별($B=-.003$, $p=.979$), 학년($B=.010$, $p=.807$) 그리고 TV시청 시간($B=-.060$, $p=.252$)은 상호작용 자신감 차원의 다문화 감수성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독립 변인인 <비정상회담>의 시청횟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상호작용 자신감 차원의 다문화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상호작용 자신감 차원의 다문화 감수성이 더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과 더 자주 접촉할수록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상호작용 자신감 차원의 다문화 감수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제5장 결론 및 논의

제1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이 대학생 시청자의 다문화 감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오늘날의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타문화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정서적 영역의 다문화 역량인 다문화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한국 사회는 신속히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타문화에 대한 편견 없이 다른 문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가 많다. 인종차별과 같이 사회가 다문화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다양한 문화들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식하며,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욕구인 다문화 감수성이 필요하다. 이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정보화 시대인 만큼 이러한 다문화 교육 과정 내에 미디어의 큰 영향력을 인정해야 한다. 미디어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시사 프로그램이든, 예능 프로그램이든 TV프로그램의 영향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다양하다. 따라서 미디어가 사람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또는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해서 사람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이 대학생과 대학원생 시청자의 다문화 감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이 높아질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총 207명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학생들의 JTBC<비정상회담> 시청횟수를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표 V - 1] 다문화 감수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의 종합

	다문화 감수성		상호작용 참여		문화 차이 존중		상호작용 태도		상호작용 자신감	
	B	p	B	p	B	p	B	p	B	p
시청횟수	.077	.001**	.107	.000***	.071	.009* *	.063	.023	.061	.122
성별	.051	.447	.098	.251	.095	.216	-.002	.984	-.003	.979
학년	.001	.979	-.028	.361	-.010	.725	.037	.187	.010	.807
해외거주 경험	.036	.083	.056	.031*	.004	.881	.009	.719	.079	.020*
TV시청 시간 (1주)	-.041	.202	-.042	.303	-.053	.147	-.012	.742	-.060	.252
외국인 접촉 (한달)	.233	.000***	.278	.000***	.144	.003* *	.177	.000***	.346	.000***
가설 검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기각	

TV프로그램이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변인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그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 연구 가설인 상호작용 참여, 문화 차이 존중 그리고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 차원의 다문화 감수성은 시청횟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다문화 TV프로그램의 시청횟수는 다문화 감수성의 하위 요소 중 상호작용 자신감의 결과에는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V-1]과 같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문화 TV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다문화 감수성 함양에 전체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앞선 이론적 논의에서 설명한 미디어의 큰 영향력을 활용하여 시사 프로그램이든, 예능 프로그램이든 TV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들의 다문화 감수성과 같은 정서적 영역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의 통제 변인 중 성별, 학년 그리고 TV시청시간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다문화 감수성의 모든 차원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수미/정기선(2004)의 선행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점인데, 선행 연구에서는 보통 특히 상호작용 태도 차원에서 여성이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국인 접촉이라는 종속 변인은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의 모든 차원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 변인인 해외 거주 경험은 상호작용 참여와 상호작용 자신감 차원의 다문화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상호작용 자신감 차원의 다문화 감수성에는 프로그램 시청횟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인의 해외 거주 경험 및 외국인 접촉은 다문화 감수성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호작용 자신감과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보다 자기의 실행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TV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보다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다문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타문화의 상호작용에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TV프로그램 내의 외국인의 묘사가 더 현실적일수록 사람들 간, 또는 타문화 간의 상호작용이 더 순조롭고 문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요컨대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외국인인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데 효과적임을 설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 TV프로그램이 시청자의 다문화 감수성의 함양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TV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든 연령대 시민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제2절 논의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 및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한국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이 대학생 시청자들의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정상회담> 외에 다른 다문화 TV프로그램들도 시청자들의 다문화 감수성에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텔레비전은 현 사회의 많은 미디어 중 하나이며 대중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미디어이다. 그리하여

TV프로그램 하나로 대학생 시청자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디어를 통해 모든 시민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효과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문화 TV프로그램이 앞으로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연령대의 출연진을 보여준다면 한국 시청자들은 더 많은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며, 나아가 다문화 TV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현재 다문화 사회의 요구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텔레비전은 동시에 여러 감각이 관여하는 미디어로서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문화 TV프로그램인 <비정상회담>의 미디어로서의 영향력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 다양한 다문화 관련 TV프로그램이 제작, 방송되고 교육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설문 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조사했으며 따라서 인터넷을 잘 쓰지 않는 학생들의 응답은 다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를 오프라인 설문 조사로 진행할 경우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이라는 조사 방식으로 인해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추후 유사한 연구를 오프라인으로 실시하여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TV프로그램 <비정상회담>을 본 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또는 <비정상회담>을 시청한 횟수에 따라 다문화 감수성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비정상회담>이나 비슷한 다문화 TV프로그램 시청 전과 후의 다문화 감수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김예랑, 우수명 (2011), 국제 사회복지기관 실무자의 다문화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9, 155-184.
- 김정덕, 모경환(2011). 문화성향과 다문화 감수성 관계 연구. 교육문화연구, 17(3), 193-226.
- 박수미, 정기선 (2004),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자료집, 5-26.
- 박선옥, 이윤정 (2015), <비정상회담>의 다문화 이해 양상 분석, 다문화콘텐츠연구 19, 77-112.
- 법무부 (2017),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장단기체류외국인 (2017. 8. 31.현재), 통계자료.
- 안전행정부 (2013), 안전행정부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 이현정, 안재웅, 이상우 (2013), 다문화 콘텐츠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언론학보 57(3), 34-57.
-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비정상회담 홈페이지, 2017년 10월 6일 검색 기준.
- 차나영 (2013), 다문화 프로그램 생산과정 연구: KBS<러브인아시아>의 다문화 가족 재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경희 (2018), 예술 경험이 중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효과 - 음악창작활동 사회과 수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 최호림 (2015), 한국 다문화사회의 진전과 동아시아의 이주: 현황과 쟁점, 동북아문화연구 42, 35-55.
- Appadurai, Arjun (1990), Disjuncture and Difference in the Global Culture Economy, Theory, Culture, and Society 7, 295-310.
- Beck, Ulrich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 London: Sage.
- Bhawuk, Dharm P. S., Brislin, Richard (1992), The Measurement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Using the Concept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6, 413–436.
- Castells, Manuel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Oxford: Blackwell.
- Chen, Guo–Ming, Starosta, William J. (1998), *Foundation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llyn & Bacon, Boston, MA.
- Chen, Guo–Ming, Starosta, William J. (200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Human Communication*, 3(1), 3–14.
- Choe, Hyun (2003), *National Identity and Citizenship in China and Korea*, Irvine University of California.
- Cross, Terry L., Bazron, Barbara J., Dennis, Karl W., & Isaacs, Mareasa R. (1989). *Towards a culturally competent system of care: A monograph on effective services for minority children who are severely emotionally disturbed*.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Child Development Center.
- Freeman, Caren (2011), *Making and Faking Kinship: Marriage and Labor Mig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Fritz, Gregory. K., Poe, Richard O. (1970) The role of a cinema seminar in psychiatric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6, 207–210.
- Fritz, Wolfgang, Graf, Andrea, Hentze, Joachim, Möllenberg, Antje, Chen, Guo–Ming (2005), An Examination of Chen and Starosta’ s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14(1), 53–65.

Gladkova, Anna A., (2013), The role of television in cultivating the values of pluralism and cultural diversity in children, *Psychology in Russia: State of the Art* 6(1), 138–143.

Hammer, Mitchell R., Bennet, Milton J., Wiseman, Richard (2003), *Measur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The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 421–443.

Jenkins, Henry (2006),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New York: NYU Press.

Kim, Hye–Soon(2006),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Discourse and Married Immigration Women, Korean Society’ s Change and Integ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Multicultural Era*, Seoul: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Kim, Nora Hui–Jung (2009),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the puzzle of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Citizenship Studies*, 16 (1), 103–117.

Kong, Dongsung, Yoon, Kiwoong, Yu, Soyung (2010), The Social Dimensions of Immigration in Kore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0 (2), 252–274.

Korhonen, Vera (2010), *Towards Intercultural Sensitivity: Some Considerations when Studying Cross–Cultural Issues from a Lifelong Learning Perspective*. In: Vera Korhonen (ed.), *Cross–cultural Lifelong Learning*, 13–38.

Kymlicka, Will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Clarendon Press.

Lee, Yongseung (2015), *Discussion on Multiculturalism in Korea: The Origin of Lack of Opposition to Multiculturalism*, OMNES:

-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5(2), 85–114.
- Lim, Timothy (2010), Rethinking Belongingness in Korea: Transnational Migration, “Migrant Marriages” and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Pacific Affairs* 83(1), 51–71.
- Moon, Seungho (2010), Multicultural and global citizenship in the transnational age: The case of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cultural Education*, 12(1), 1–15.
- Olson, Christa L., Kroeger, Kent R. (2001) Global Competency and Intercultural Sensitivity,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5(2), 116–138.
- Pai, HyungIl (2000), Constructing “Korean” Origins: A Critical Review of Archaeology, Historiography, and Racial Myth in Korean State–formation Theorie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 Siapera, Eugenia (2010), *Cultural Diversity and Global Media: The Mediation of Difference*, Wiley–Blackwell.
- Tehrani, Majid (1999), *Global Communication and World Politics: Domination, Development, and Discourse*,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 Inc.
- Thompson, John B. (1995), *The Media and Moder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ayani, Mohamed (2011), Media, Cultural Diversity and Globaliz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Journal of Cultural Diversity* 18(2), 48–54.

부록

부록 1: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리사 부즈바하라고 합니다. 저는 다문화 TV프로그램인 JTBC<비정상회담>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와 편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TV프로그램 제작자들은 미디어의 큰 영향력을 이용해서 편견을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TV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TV프로그램이 대학생 시청자들의 다문화적 이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여 소중한 경험에 대해 들려주신다면, 미디어가 다문화적 이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진솔한 생각 및 경험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기에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생각한 대로 솔직하게 응답하면 됩니다.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서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며 중간에 포기할 경우에는 그 동안 수집된 답은 모두 삭제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리사 부즈바하(lisawu@naver.com) 올림

Part I. 아래의 문항은 다문화 TV 프로그램 시청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1) 귀하는 JTBC <비정상회담> 시청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2) JTBC<비정상회담>을 시청한적이 있다면, 귀하의 시청횟수는 몇 회 정도입니까?

- ① 1-5 ② 6-10 ③ 11-15 ④ 15이상

3) “나는 다른 나라와 외국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JTBC<비정상회담>을 시청한다.”에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Part II. 아래의 문항에 대해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No	문항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즐긴다	1	2	3	4	5
2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상대방에 대하여 선불리 첫인상을 규정하지 않는다	1	2	3	4	5
3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개방적이다	1	2	3	4	5
4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때 그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1	2	3	4	5
5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상황을 꺼린다	1	2	3	4	5
6	나는 문화가 다른 상대방에게 내가 그들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언어적으로나 비언어적으로 표현한다	1	2	3	4	5
7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는 바로 그 점을 즐기는 것 같다	1	2	3	4	5
8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생각이 편협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9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다	1	2	3	4	5
10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가치관을 존중한다	1	2	3	4	5
11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고유한 행동방식을 존중한다	1	2	3	4	5
12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은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1	2	3	4	5

13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상당히 자신 있다	1	2	3	4	5
14	나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주 힘들다	1	2	3	4	5
15	나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1	2	3	4	5
16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사교적일 수 있다	1	2	3	4	5
17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때 자부심을 느낀다	1	2	3	4	5
18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때 쉽게 기분이 상한다	1	2	3	4	5
19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끔 의기소침해진다	1	2	3	4	5
20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때 종종 이런 교류가 쓸모 없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21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때 매우 주의 깊게 그들을 관찰한다	1	2	3	4	5
22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고자 노력한다	1	2	3	4	5
23	나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때 그들이 보여주는 미세한 표현들에 대해 민감하다	1	2	3	4	5
24	나는 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Part III. 아래의 문항은 설문 결과를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인적 사항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디에 속하나요?

- ① 여자 ② 남자

2) 귀하의 학년은 어떻게 되나요?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대학원

3) 귀하는 해외에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1개월 이내 ③ 1개월~6개월 ④ 6개월~1년 ⑤ 1년 이상

4) 귀하의 1주 평균 TV프로그램 시청량은 몇 시간 정도입니까?

① 1시간 이하 ② 1-3시간 ③ 4-6시간 ④ 7시간 이상

5) 귀하가 외국인과 만나는 횟수는 한 달 평균 몇 번 정도입니까?

① 0 ② 1-5번 ③ 5번이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연구자 리사 부즈바하

(문의사항: 전화번호: 010-2970-4906, E-mail: lisawu@naver.com)

Abstract

The Effect of Multicultural TV Programms on University Students' Intercultural Sensitivity – Focused on JTBC<Abnormal Summit> –

Lisa Wurzbacher

Department of Soci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Advisor: Mo, Kyung–Hwan, Ph. D.

During most recent years South Korea has been rapidly changing into a hub of multicultural activities and entertainment. But despite this unexpected transformation, there are still numerous issues and prejudices arising within the society regarding this multicultural change and one of those issues is intercultural sensitivity. As the media acceptance and society swiftly changed, a deeper understanding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was unable to keep up the same pace. With media being accessible at any time and any place, it is also of importance to acknowledge the underlying influence of the media on the watchers and their behavior. As there are various multicultural television programs aired weekly and being viewed by a wide range of audience, producers of these shows found an opportunity to use this influence to try to overcome such prejudices.

Based on that conclusion there is a need to identify the ways in which television programs are able to influence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of individuals and how it changes their view of other cultures beside their own.

This study will inquire about the type of influence that Korean multicultural television programs has on improving the viewers' attitudes toward outside cultures and slowly removing the unconscious racist tendencies toward other individuals from other cultural backgrounds.

In order to reach an adequate judgement on this issue, a survey around Korea's representative multicultural TV program JTBC's Abnormal Summit was conducted amongst Korean university students.

Main hypothesis: The more university students watch the multicultural TV program JTBC Abnormal Summit, the more their intercultural sensitivity increases.

- **Sub-hypothesis #1:** The more university students watch the multicultural TV program JTBC Abnormal Summit, the more their intercultural sensitivity on the students' interaction engagement level increases

- **Sub-hypothesis #2:** The more university students watch the multicultural TV program JTBC Abnormal Summit, the more their intercultural sensitivity on the students' respect of cultural differences level increases.

- **Sub-hypothesis #3:** The more university students watch the multicultural TV program JTBC Abnormal Summit, the more their intercultural sensitivity on the students' attitude towards interaction level increases.

- **Sub-hypothesis #4:** The more university students watch the multicultural TV program JTBC Abnormal Summit, the more their

intercultural sensitivity on the students' interaction confidence level increases.

Based on the above research hypotheses an online study was conducted amongst a total of 207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the results were used for this research analysis.

In order to examine the hypothesis that the increase of viewing of the multicultural TV program JTBC Abnormal Summit by university students increases their intercultural sensitivity,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discovered that indeed the more university students watch the multicultural TV program JTBC Abnormal Summit, the more their intercultural sensitivity heightens. Furthermore, the sub-hypotheses concerning students' interaction engagement, respect of cultural differences, and the students' attitude towards interaction was found to increase with the amount of Abnormal Summit consumption. Only the students' interaction confidence was observed to have no correlation with the viewing of the multicultural television program. Nevertheless, the study was able to confirm that continuous viewing of the multicultural TV program Abnormal Summit does in fact increase the students' intercultural sensitivity.

Keywords : Intercultural Sensitivity, Intercultural Capability, Multicultural TV Program, Abnormal Summit, University Student Viewer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6-25255